선학원, 주지 몰래 분원토지 매각 논란

총림선원, 진주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소송'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진주 총림선원 전경.

전통사찰구역 내 1만여평 일방 매각
주지 협의없이 선학원·진주시 계약
'명백한 절차상 하자'란 논란도 거세
뒤늦게 인지한 주지·창건주 소청구

진주시 매매 과정에도 '의혹' 제기
애초 '무상 임대' 방안 논의됐으나
토지 매입 대금으로 13억 원 지출
문체부 허가도 누락… '무효' 사유

재단법인 선학원이 창건주·분원장을 배제한 채 분원 토지를 진주시에 일방적으로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해당 분원은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전통사찰로, 주지가 전통사찰보존지 처분에 따른 허가신청권을 가질 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선학원과 진주시가 무리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진주 총림선원은 최근 진주시(시장 조규일)를 상대로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토지는 경남 진주시 망경동 산 18-1에 위치한 임야 1만 3832㎡ 상당이다. 총림선원 대웅전 뒷편에 인접한 사찰림으로,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상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진주시는 해당 부지를 매입해 현재 추진 중인 '망경공원 조성사업'에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부지와 관련해 선학원과 진주시가 체결한 매매계약에 절차상 하자 논란이 거세다. 해당부지는 전통사찰 총림선원에 속한 전통사찰보존지로, 전통사찰보존법에 근거해 양도돼야 하지만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전통사찰 토지 양도 시에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 처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해당부지 양도를 위해 선학원의 이사장 승인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처분허가를 득해야 할 신청권자이자 등기의무권자는 주지(분원장)이다.

그러나 선학원과 진주시는 주지를 완전히 배제한 채 망경공원에 편입되는 총림선원 부지에 대한 협의서를 체결했고 진주시는 2019년 12월 이에 따른 매매대금 13억여 원을 선학원에 지불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은 2020년 2월경으로, 총림선원 주지(분원장)와 창건주가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인지한 것은 그로부터 4개월 뒤인 2020년 6월 경이다.

해당 부지의 명의가 재단법인 선학원으로 등기돼 있었다는 점은 변수로 지적된다. 등기권자의 매각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本紙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진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 유권해석 결과, "일반적으로 양도·처분행위에 대한 재산관리 처분권은 등기부상 소유권자에게 있지만 전통사찰법 제9조에 따른 처분 허가신청의 주체는 전통사찰의 주지로, 사찰이 속한 단체의 승인서를 첨부토록 돼 있다"고 확인됐다.

법률전문가들 역시 "선학원이 총림선원의 명의수탁자임을 감안하면 총림선원 주지의 신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 없이 체결된 양도계약은 절차상 하자로 당연무효 소지가 높다"며 "특히 해당법은 주지의 지위에 대해 '전통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운영 및 재산을 관리하고 전통사찰의 보존발전계승을 관장하는 승려'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주지 모르게 매매절차가 진행된 점은 명백한 하자가 될 수 있다"고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심각한 하자로 지적된다. 本紙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전통사찰 토지처분과 관련한 허가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림선원과 관련한 승인건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부존재 여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3항에 의거해 해당 계약은 무효화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해당 부지의 등기상 소유가 선학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총림선원이 부지 매각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등기권자와 협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또한 해당 부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인지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 재판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결이 날 경우 선학원으로부터 매입금을 회수하고 원상회복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총림선원 창건주 A스님은 "총림선원은 삼보정재 유실 방지와 사찰 존속을 위해 진주시와 이미 2018년경부터 망경공원 편입부지에 대한 '무상영구임대'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특히 산18-1번지는 전각 뒤편에 인접해 있어 총림선원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지임에도, 사찰 주지조차 모르게 매각됐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법적으로 이를 되돌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림선원 사례와 관련, 재단법인 선학원이 분원장을 배제한 채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재단법인의 특성상 소속 분원의 재산명의는 선학원이더라도 사사찰(私寺刹)의 경우 분원으로서 재산권한을 상당부분 인정해 왔다는 점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선학원 관계자는 "총림선원과 관련해 토지수용의 건이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온 적이 있다"며 "선학원 소속 분원의 재산은 모두 선학원으로 등기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해당 분원이 요청하고 분원의 의사를 반영해 이사회가 승인을 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하지만, 총림선원은 분원의 의사에 반해서 분원 모르게 진행된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학원은 재단법인이기에 사사찰(私寺刹)의 경우 명의는 선학원이더라도 분원의 재산권한을 인정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총림선원 사례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 이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독립운동·예술활동…근대화 이끈 불자 6人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요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근대화 과정에서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불교인물 선양사업을 추진한다. 독립과 문화예술 등 5개 분야에서 사회 구제와 한국 근대화를 이끈 12명의 불교인을 선정, 이들을 집중 홍보해 현대불교와 사회발전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홍보대상인 신화수, 박노영, 김상언, 박봉석, 한성준, 나혜석 등 6명의 업적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신화수(1896~?) 스님

신화수 스님은 1919년 3·1운동 당시 만해(1879~1944)스님의 지시 아래 만세운동에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오택언(1897~1970) 스님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은 인물이다. 신화수 스님은 이를 안전하게 통도사 스님들에게 전달, 3월 13일 양산 신평장터 만세운동 촉발에 도화선 역할을 담당했다. 신화수 스님의 활약으로 시작된 신평장터 만세운동은 3·1운동 이후 경상남도에 일어난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으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인근 해인사와 표충사 만세운동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23년 1월 12일 의열단 김상옥 의사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에 적극 조력한 독립투사로 평가받는 신화수 스님은 1930년대 이후 행적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못해 제대로 된 평가와 서훈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박봉석(1905~?)

박봉석은 불교 서지학 연구의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조선공공도서관 도서 분류표를 만든 인물이기도 하다. 중앙고보에 재학 중 경성에 있는 중앙불교학우회 활동을 하며 포교활동에 앞장섰던 그는 8·15광복 후 불교계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맡아 동분서주했다. 그는 중앙불교전수학교를 졸업한 1931년 종선총독부 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사서로서 연구내용을 보면 한국불교장경과 한국불교사 속 인물을 정리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도서 분류에 있어 지금까지 소외됐던 조선이란 항목을 첨가해 독자적인 분류체제를 이뤄낸 성과들로 '한국 도서관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한다.



박노영(1897~1976)

양산 통도사에서 불문(佛門)에 들은 박노영은 1919년 중앙학교에 재학 중 만해 스님의 영향을 받아 3·1운동에 적극 가담했다. 3·1운동 전날 경성 시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데 이어 동료 학생들의 선두에서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1919년 4월 김상옥과 백초월 스님이 주도한 비밀독립운동단체 혁신단에 참여해 〈혁신공보〉 〈자유신종보〉 발행을 주도했다. 독립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일본경찰의 수배를 받게 된 그는 중국 상해로 몸을 피했다가 1920년 미국을 건너갔다. 환속한 그는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해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활발한 강연과 더불어 다양한 집필활동을 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며 식민지 한국의 현실을 알렸던 그는 귀국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다.



한성준(1874~1942)

근대 전통 승무의 전승자로 불리는 한성준은 전통 예술인으로 삶을 살다간 인물이다. 17~20세 수덕사에서 지내며 승무를 수련했다. 한성준은 승무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1930년 조선음악무용연구회를 조직, 불교계 의식에서 활용됐던 승무를 대중화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공헌했다. 일본 동경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순회공연하면서 호평 받은 그는 1908년에는 고종으로부터 참봉벼슬을 받고 궁중을 출입하기도 했다.



김상언(1873~1965)

김상언은 제주도 법정사 신도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해 거사 현장에서 중문 경찰관주재소 건물과 기구를 불태우는 등의 활약을 한 항일운동가다. 법정사 정기 예불에 참석하며 항일운동 거사 목적을 인지하고 참여해 활약했다. 법정사 스님인 강창규 스님을 도와 활약한 그는 항일운동 중 현장에서 체포돼 3년 간 수감생활을 했다. 법정사는 1918년 항일운동 이후 일제에 의해 불살라지고 참여자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힘든 여생을 살아야 했다. 김상언은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항일운동에 참여한 신도로 그 업적을 기려야 하는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나혜석(1896~1948)

나혜석은 한국 최초의 여성 유화가, 문학가, 독립운동가로 불리며 압도적 존재감을 뽐낸다. 일본 유학을 한 엘리트 신여성이자 3.1운동으로 5개월간 구속된 독립운동 이력, 7년간 안동현 부영사 부인으로 만주 경험에 더해 20개월 동안의 세계여행은 식민지 시절 당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 경험을 지닌 인물이었다.

수원 최초 미술전람회를 1929년 수원포교당에서 개최한 것은 나혜석과 불교라는 첫 접점을 만들었다. 이듬해부터 서울 수송동에 머물며 그림 그리기에 전념한 그는 인근 각황사에 다니며 불교 공부를 했고 그곳에서 만난이들을 통해 해인사, 다솔사 등과 인연을 맺었다.

나혜석의 후반기 삶은 '예술혼'과 '보리심' 즉 예술과 불심으로 지탱됐다. 수덕사로 입산 출가한 김일엽과의 인연으로 수덕여관을 근거지로 활동했다. 속세를 떠나 산사 주변에 머무르며 마지막 생애는 비승비속의 삶이자 치열한 창작 활동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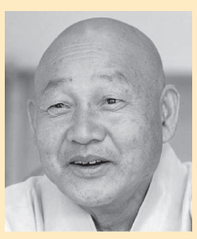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 한국불교 7대 선사 |

제 4 회 간화선 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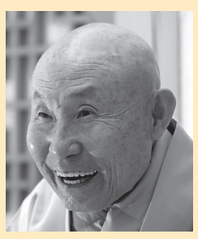
세계명상마을 개원, 깨달음의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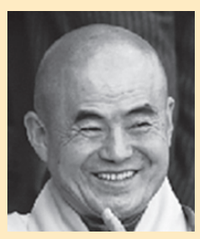
천년의 道! 문경 세계명상마을 山門을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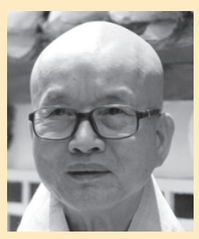

성파 대선사 (15대 종정예하) 4.26 화


지유 대선사 (범어사 방장) 4.22 금


대원 대선사 (학림사 조실) 4.20 수


무여 대선사 (축서사 조실) 4.24 일


혜국 대선사 (석종사 조실) 4.25 월


의정 대선사 (한국참선지도자협회 이사장) 4.23 토


영진 대선사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4.21 목

기간 4.20 수 - 4.26 화 오후 1시 - 3시
장소 문경 세계명상마을
검색 문경 세계명상마을
문의 1577-4327
주최 전국선원수좌회
주관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후원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문경시 MUNGYEONG CITY 한국참선지도자협회 한국명상총협회 국제포교사회